

해외 연수기, 콜로라도 덴버 National Jewish Health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
신유섭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의 신유섭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한국에 도착하여 많은 선생님들에게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연수기를 통해서나마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제가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National Jewish Health라는 곳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Erwin W. Gelfand라는 분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 분은 제가 연수를 가기 전에도 경희대 소아과의 나영호 선생님, 연세대 알레르기 내과의 박중원 선생님 등 많은 한국인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사진 1. National Jewish Health 전경

사실 저의 연수는 다른 선생님들의 연수와는 처음부터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임용을 받은 후에 가는 연수가 아니었고,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바로 해외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준비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수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의 전임의 과정을 지켜봐 주셨던 연대 알레르기내과의 박중원 선생님께서 본인이 다녀온 National Jewish Health의 Gelfand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고, 그 해에 마침 Gelfand 교수님께서 한국에 학회 참가 차 방문하셔서 인사를 드리고 추천서를 받아주셔서 덴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수 준비 중에 우연히 덴버에 계신 한국인 소아과 의사

인 김병의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 분의 도움으로 서류준비 등의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연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7월 23일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 공항에 도착하였고, 첫 날은 김병의 선생님 댁에 초대받아 저녁식사를 하면서 연수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에서는 영어가 실력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연수가 끝난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후회가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이곳 저곳 탐색하면서 집부터 구했는데,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살 집은 직접 보고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김병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집도 마다했었는데, 만약 앞으로 덴버로 연수가 실 분이 있으시다면 김병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집은 그냥 okay 하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거환경, 학군 등을 다 따져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집도 구하고, 차도 사고 드디어 National Jewish Health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Gelfand 교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실험실 연구원들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였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친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원 12명 중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연구원들이 8명이나 되어서 말만 안하고 있으면, 여기가 아시아인지 아메리카인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이 사람들과 주로 이야기 하다가 보니, 연수를 끝난 지금도 저의 영어 발음은 ‘처음과 동일’입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아빠가 영어하면 일본 사람이 영어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매일 이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 영어하는데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Gelfand 교수님은 이전에 한국의사를 많이 받아봐서 인지, 저희가 실험이라는 것에 얼마나 생소한지를 잘 알고 있으시더군요.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항상 하시는 말씀은 천천히 해도 다 되니까 서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하루는 “Don’t 빨리빨리.” 라고 하시면서 아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하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실의 첫 6개월 동안은 책임으로 맡은 연구과제 없이 거의 Observation만 하며 지냈습니다. Western Blotting, real time PCR, Flow cytometry 등 논문에서 결과만 보았지 혼자 하기에는 생소한 것들을 관찰하고 때로는 혼자 해 보며 skill을 늘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6개월 후에 과제를 하나 받았고, 1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주셔서, 2년 8개월 동안 총 4가지의 프로젝트를 하였고 그 중의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논문까지 작성하여 Gelfand 교수님에게 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실험이라는 것이 서둘러 하려는 의욕보다는 남들과 서로 의논하며 방향을 바로 잡고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회식 문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간지 채 1년이 안 되었을 때 하루는 실험실에서 회식을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병원 앞의 작은 중국음식점으로 회식을 갔습니다. 회식의 분위기도 여느 미국의 분위기와 같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Gelfand 교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키고, 먼저 식사를 시작하고 등등 한국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과 다른 것은 식사가 다

끝나고 하는 말이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각자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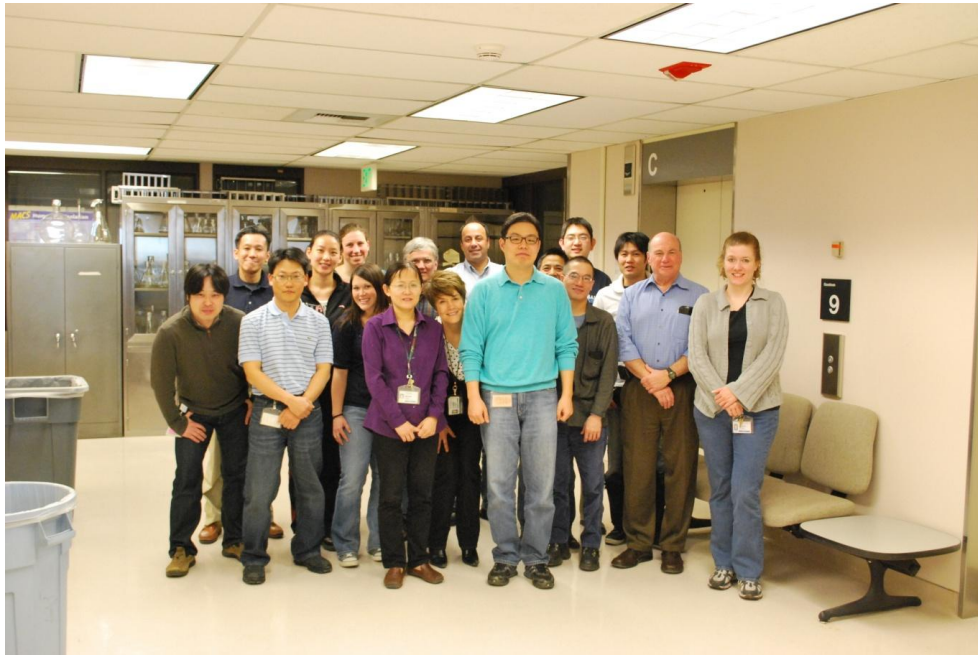


사진 2. Gelfand 교수님 실험실의 연구원

미국에서의 생활은 실험실의 일이 한국에서 의사의 일보다 적은 것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이 참 좋아서 하루하루가 여행에 온 듯한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덴버는 로키산맥의 동쪽에 Great plateau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200만 명 정도의 미국 중부 큰 도시로 해발 1600 m에 위치하고 있어 Mile city라고도 불립니다.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고 한국보다 많이 건조한 기후라서 상당히 쾌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의사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할 점은 건조하고 높아서 집먼지진드기와 바퀴벌레 같은 알레르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는 집먼지진드기에 감작된 비염이 심하였는데 덴버에 살 동안은 비염증상을 전혀 모르고 지냈고, 같이 연수 오신 선생님들도 알레르기 증상은 거의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환자에게 좋은 환경 때문에 National Jewish Health라는 호흡기, 알레르기 전문 병원이 덴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은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에 유태인들에 의해서 덴버에 처음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결핵환자들의 요양병원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결핵 환자가 거의 없어지자, 다른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의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했으며, 현재는 자그마한 건물 10개 동으로 구성된 병원인데 이중에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침대의 수는 20개 밖에 없으며 다른 모든 건물과 시설들은 연구실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병원규모로도 많은 연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로도 14년 연속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전문병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대한천식알레르기 추계 학회 때에 Gelfand 교수님께서 다시 한국에 방문하신다고 하니 그 때 만나 뵙고 인사 드리며, 미국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경험한 이야기를 이 연수기에 다 쓰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쳐 쓰지 못한 경험담과 이야기도 많으니, 학회 선생님들 중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하여 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맺습니다.